

定累月……」

寺名 三字만이 唯一한 것인데 이것이 陝川 靈巖寺라고 斷定한 根據도 없으나 現在 本寺址의 遺物들과는 年代的으로 符合되는 點이 있으므로 여기 附記하여 同人諸位의 敎示를 기다리기로 한다. (二〇月一日)

鐵佛頭 二例

鄭 永 鎬

佛像研究에 있어서 頭相은 衣褶과 더불어 가장 注目되는 바이다. 더욱이 前者에는 時代의 樣式의 特徵과 精神의 內容이 具現되며 造像의 工匠도 한이 곳에 注力하는 까닭이다. 筆者는 最近 서울市內에서 鐵造佛頭 二例를 調査한 바 있어 비록 佛身과 分離되어 關係知見을 喪失한 遺品이나마 年代의 高古함과 巨像의 것으로 推定됨에서 簡單히 紹介한다.

〔其一〕 서울 仁寺洞 博古堂 所藏 (寫眞上)……今年四月京畿道 富平에서 入手되었다는 데 日人의 舊藏이라고 한다. 螺髮로서 肉髻는 둥글고 그 밑에 半月形의 突起가 보이며 耳端은 缺失되었으나 原來 구멍이 마련되었던 듯하다. 相好는 둥근 편이나 豐滿하지 못하고 眉間에는 白毫孔이 있으며 弧形의 兩肩에 이어진 鼻部는 크고 오뎅하며 눈은 가늘



고 口唇은 작은데 微笑를 띄었다. 螺髮에는 綠과 紅相好에는 綠과 白의 彩色片이 남아 있다. 高三六·五 cm 幅二七 cm

第二卷 第十號 通卷十五號

고 口唇은 작은데

微笑를 띄었다. 螺髮에는 綠과 紅相好에는 綠과 白의 彩色片이 남아 있다. 高三六·五 cm 幅二七 cm

〔其二〕 서울 壽

松洞 九霞山房 所藏

(寫眞下)……發見 및

入手經緯는 未詳이다. 라는 바 高四〇 cm로서 前者보다 더욱 크다. 螺髮인데 肉髻의 區別은 거의 없다. 넓은 이마에는 白毫孔이 있으며 弧形의 兩肩을 따라 그 위에 細線一條을 刻하였다. 鼻樑은 低平한 편이며 口唇은 磨損되었으며 兩耳는 輪廓만 耳朶를 缺하였다. 눈을 가늘게 펴서 그 긴 꼬리는 위로 올라갔다. 頸部에는 三道가 보이는데 全面에 彩色는 아니 보이며 赤鏽가 덮여 있을 뿐이다. 顔容은 豐滿한 편이나 各部의 彫法이 多少形式에 흐르고 있음은 時代의 降下를 보이는 하나 巨像의 것으로서 保存도 良好하다.

以上 兩品은 新羅下代로부터 流行한 鐵佛 造成에 따르는 遺物로서 羅末麗初頃으로 推定되는 바 貴重한 資料로서 國內에 保存되어야 할 것이다.

實測值 (cm)

頭周 額幅 兩頰幅 眼長 口唇幅 耳長

〔其一〕 八五·五 一九一七 七·五 五·五 一六·八
〔其二〕 一一二·五 二九二五 一〇六 二〇

